

첫째이며 가장 중요한 버림은 육체의식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 밥다다는 버림의 형상인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다. 브라민 영혼 하나하나가 버림의 화신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행운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즉 너희 자녀들 모두 한 분인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너희 모두 똑같은 복과 유산을 받지만 그것을 보살피고 늘리는 방법을 토대로 너희가 등수대로 된다는 것과 너희들 모두 버림의 형상이 되었지만 너희는 이것에서도 역시 등수대로라는 얘기를 들어왔다. 너희는 버렸고 브라민이 되었지만 버림에 대한 정의는 매우 깊다. 말하기 위해서 너희 모두 똑같은 한 가지 말, 즉 너희가 몸, 마음, 부, 친척들을 이미 버렸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몸에 대한 버림이란 몸에 대한 의식을 버린다는 뜻이다. 그러면 너희는 몸에 대한 의식을 버렸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버리고 있느냐? 버림이란 모든 것과 모든 상황을 놓아버리고, 너희에게 속하는 그 무엇에 대한 감정에서도 걸음을 비껴서고, 그것에 대한 너희의 권리를 끝낸다는 뜻이다. 너희가 버린 것은 이제 그것을 가져간 그 사람에게 속한다. 버린 것이 뭐든, 너희는 심지어 그것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버렸거나 또는 버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생각만으로도 도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정된 산야시들은 그들의 가정과 친척들을 버리고 떠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집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겠느냐? 그들의 규율에 의하면 그들은 돌아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브라민인 너희들은 무한한 산야시들이며 버린 자들이다. 버림의 형상인 너희들은 낡은 집, 즉 너희들의 낡은 몸과 낡은 몸에 대한 의식을 버렸다. 너희들은 지각으로 결코 두 번 다시 그 낡은 집에 끌리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너희는 심지어 생각으로도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버림이었다. 이런 이유로, “너희의 육신과, 몸에 대한 모든 의식을 포함해서 육신의 친척들을 모두 버려라”라고 한다. 이처럼 너희가 이미 버린 낡은 집에 되돌아가지는 않겠지? 너희가 뭘 약속했느냐? 너희가 “몸마저 당신께 속합니다”라 했느냐, 아니면 그저 “마음은 당신에게 속합니다”라고만 했느냐? 너희가 처음 한 말은 “몸”이었다. 너희는 몸, 마음, 부에 관해 말한다. 너희는 몸과 육신의 친척들에 대해 얘기한다. 그러니 첫 번째 버림은 무엇이었느냐? 낡은 몸에 대한 의식을 잊고 그것에서 비껴서는 것이었다. 이것이 버림의 첫 번째 순서다. 가정에서 너희에게는 살림살이 옹품과 도구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신체감각들은 몸이라는 가정의 도구들이다. 그러므로 집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뜻이다. 그러니 비록 가정을 떠났지만 만일 단 한 가지의 것에 대해서라도 여전히 애착이 있다면 그것을 버림이라 부르겠느냐? 마찬가지로 만일 신체감각 중 뭔가가 너희를 끌어당긴다면 그것을 완전한 버림이라 부르겠느냐? 이런 식으로 너희 스스로 점검해라. 부주의해져서, 너희는 이미 다른 모든 것을 놓아버렸으니 신체감각 중에서 하나가 말썽을 일으킨다 해도 때가 되면 그것이 저절로 바로잡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사실 단 한 가지 신체감각의 끌어당김도 너희가 아버지에게 속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한결같고 안정적인 단계에 안정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1등급 (첫 번째 사단)에 속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누군가 자기가 가진 다이아몬드, 보석, 궁전들을 다 포기했지만 약간 깨진 웅기그릇에 약간의 애착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이아몬드가 끌어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깨진 토기도 역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그 사람을 거둬 끌어당길 것이다. 그들의 의식적인 바람에 반하여 그들의 지각은 자꾸만 그쪽으로 끌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일 너희가 신체감각 중 뭔가에 여전히 끌린다면 그것은 너희를 거둬 끌어내릴 것이고 너희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것이다. 따라서 낡은 집과 그것의 모든 도구들에 대한 버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너희로 하여금 많이 잃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완전한 버림이 있어야 한다. 그 낡은 몸은 너희가 밥다다에게서 받은,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것이라고 여겨라. 너희는 봉사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해 더없이 귀중한 보물이다. 너희는 손님으로 그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너희가 과제를 수행하도록 밥다다는 그 몸을 너희에게 단기간 동안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이 되었느냐? 손님이다! “내 것”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손님 (메만)이라 여기며 위대한 과업 (마한)에 그 몸을 사용해라. 손님들은 뭘 기억하느냐? 자기들의 진짜 집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방문한 이 집에 사로잡히느냐? 이처럼 너희 모두의 몸의 집은 천사 형태의 집이고, 그 다음에는 신인 형태의 집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기억해라! 밥다다가 이 늙은 몸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것에 갇히지는 않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낡은 몸 안에서 살아라. 행위를 행하기 위해 그것에게서 지원을 받은 다음엔 너희들의 천사의 형태에 너희 자신을 안정시켜라. 무체인 너희 형태에 너희 자신을 안정시켜라. 고귀한 너희 단계에서 내려와서 신체기관들을 통해 행위를 행하기 위해 단지 분리되어라. 이것을 손님이 되는 것, 즉 위대해지는 것이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사느냐? 버림의 첫 발걸음을 옮기는 일을 끝냈느냐?

밥다다가 요즘 듣는 재미난 얘기는 너희들 중 누구도 제 자신이 다른 이에 비해 조금이라도 못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너희에게 어떤 두 사람 중에서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연배가 아래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 자신이 조금이라도 덜하다고 여기느냐? 너희는 “왜?” “무엇이?”라는 무기를 집어들고 잘못된 형태의 힘을 과시한다. 이 장식품들도 못지 않다! 모든 힘의 장식품이 있듯이 마야, 라반의 무기도 똑똑하지 않다. 샅티들은 팔이 여러 개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들은 팔이 8개 또는 16개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라반은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라반, 마야의 힘은 맨 처음 머리 속에 격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마야는 오는 그 순간 1초에 몇 가지 형태를 취하느냐? “왜? 무엇이? 이것은 이런가? 저것은 저런가?” 같은 형태로 참으로 많은 의문의 머리들이 만들어진다. 하나를 잘라내자마자 다른 하나가 만들어진다. 즉시 열 가지가 한꺼번에 너희의 지각에 들어온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치 한 가지에게 머리 열 개를 준 셈이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머리 하나하나가 제각각의 모습을 보인다. 너희는 머리 열 개를 무기로 지닌 자가 된다.

삭티란 협력한다는 뜻이며, 교만이라는 머리를 가진 삭티가 아니라 항상 모든 무기를 다 가진 자, 즉 모든 상황에서 협조하는 자라는 뜻이다. 라반의 머리 열 개를 가진 영혼은 심지어 작은 상황에서도 결코 협조하지 않는다. “왜? 무엇이? 어떻게?” 같은 머리들을 통해 그들은 거짓된 교만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왜?”라는 의문을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라는 머리를 쳐든다. 즉, 한 가지를 처리한 다음에 뭔가 다른 것을 시작한다. 그들은 두 번째 것을 해결하고 그러면 세 번째 머리가 나온다. 그들은 되풀이해서, 그건 괜찮아, 하지만 이건 어떨까? 한다. 이를 두고 한 가지 일에 열 머리를 쓰는 삭티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결코 협조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반대를 일삼는다. 그러므로 반대를 일삼는 자들은 라반의 사회에 속하지 않느냐? 비록 브라민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때 영향을 받은 상태여서 사악한 힘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며, 한편 힘의 화신인 자는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이 협조할 것이다. 협력의 상징이 팔이다. 이런 이유로 어떤 과제가 집단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하느냐? 각자 손가락을 하나씩 보태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협력하는 것 아니냐? 손가락은 팔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팔은 협력의 상징이다. 삭티들의 팔과 라반의 머리에 대해 이해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변함없이 협력의 형상인지 여부를 너희 스스로 점검해봐라. 버림의 첫 발걸음을 떼는 데 있어 아버지를 따랐느냐? 너희들은 브라마 바바에 대해 보거나 들었다. 그는 생각으로나 입으로 끊임없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아버지의 수레다.” 그러면 너희의 수레는 누구의 것이냐? 그의 수레를 내어준 것이 브라마 하나뿐이었느냐, 아니면 너희들도 역시 모두 각자의 수레를 내어주었느냐? 브라마에게 들어가는 역할은 별개지만 너희들도 역시 모두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너희가 “몸은 제 것입니다”라고 하지는 않았다. 너희들 모두가 한 약속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든, 나를 어디에 앉히든...이라는 것이었다. 너희의 약속이 이것 아니었느냐? 아니면 내 눈은 내가 쓰고 다른 것은 모두 아버지가 쓸 것이라는 약속이었느냐? 너희 자신의 지시를 일부 따르고 부분적으로는 슈리마트를 따르겠다는 약속이었느냐? 그것이 너희의 약속이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신체감각 중 어떤 것의 영향을 받는 것이 슈리마트냐, 너희 자신의 지시냐? 그러므로 버림의 정의가 얼마나 깊은지 너희가 이해하느냐? 이렇게 해서 버림에도 등수가 생긴다. 지금 방금 바바는 몸의 버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 버림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바바는 첫 단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버림이 너희에게 어렵지는 않지?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만일 너희가 뭔가 낡은 것에 대해 보답으로 새것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려우냐? 게다가 너희는 그것을 지금 받는다! 미래에 받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 낡은 의식을 버리고 천사의 모습을 취해야 한다. 낡은 세계의 몸에 대한 의식을 버리면 너희가 그때 무엇이 되느냐? 더블 라이트다! 너희는 지금 그렇게 된다. 하지만 만일 너희가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거기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희에게는 어렵다. 완전히 버리지도 못했고, 이것을 완전히 취하지도 못해서 너희는 반만 죽었고, 이런 이유로 너희는 거듭 심호흡을 해야 한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다. 죽는 데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은 오직 너희가 완전히 죽을 때에만 그렇다. 받는 면에서 너희들은 온전히 다 차지하겠다고 얘기하는 반면, 버린다는 측면에서 너희는 심지어 웅기그릇조차 버리지 않으려 든다! 이런 이유로 그것이 어려워진다. 사실 너희들 중 누구라도 웅기그릇을 간직하기를 원한다면, 밥다다는 “좋다!”라고 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무슨 상관이었느냐? 그걸 간직해도 된다! 하지만 너희들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진다. 그래서 밥다다가 그것을 버리라고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다. 낡은 것을 붙들면 그 결과는 무엇이나? 너희의 지각은 끊임없이 그 물건을 향해 배회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너희는 천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너희에게 웅기그릇을 천 개도 넘게 줄 것이고 너희는 원하는 만큼 실컷 모을 수 있다. 그렇지만 쓰레기가 많은 곳에는 무엇이 생기느냐? 모기다. 그리고 모기가 누구를 무느냐? 따라서 밥다다는 오직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낡은 것은 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 절반만 죽은 자가 되지 마라. 죽고자 한다면 완전히 죽어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살아 있어도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너희는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것이 때로는 어려워진다. 라반의 머리가 생기면 그것이 어려워진다. 너희가 팔이 여러 개 달린 삭티가 되면 그것이 아주 쉬워진다. 그저 협조의 발을 한 걸음 내딛어라, 그러면 너희는 몇 백만 곱절로 협조의 발걸음을 받는다. 하지만 너희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기를 두려워한다. 너희가 뭘 받을 것인지는 잊고, 그저 뭘 줘야 하는 지만 기억한다. 이래서 너희가 그것을 어려워한다. 앗차.

한결같이 협조의 형상인 자들에게, 버림으로써 이 고귀한 행운을 한결같이 경험하는 자들에게, 매 발걸음마다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그들 자신을 손님이라고, 즉 위대한 영혼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무한한 버림을 행한 고결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나마스테.

아비야트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1. 너희들 본연의 단계로 높이뛰기 함으로써 어떠한 역경의 산도 극복해라.

너희는 변함없이 너희 자신을 강력한 영혼이라고 여기느냐? 강력한 영혼이란 끊임없이 마야에게 도전해서 그녀에게 승리하는 자다. 그들은 끊임없이 강력한 아버지와 함께 머문다. 아버지가 전능한 권위자이듯이 너희들도 역시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다. 모든 힘이 무기이며 장식품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모든 장식품을 다 들고 있는 영혼이라고 여기느냐? 변함없이 강력한 자들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들은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비행기를 타고 날 때 너희는 아주 높이 날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산과 바다를 넘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귀한 단계로 1초 만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너희가 높이뛰기 해서 여러 개의 산과 바다를 넘어간 것 같다. 너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힘든 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2. 윗사람 행세를 버리고 영성을 혼습하는 참된 봉사자가 되어라 .

쿠마르인 너희들 모두 영성을 끊임없이 지속하느냐? 윗사람 행세를 하지는 않겠지? 젊은이들은 금방 남들을 쥐고 흔든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젊음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나 영적인 청년이란 한결같이 영성을 유지하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변함없이 겸손한데, 왜냐하면 너희가 겸손한 정도만큼 너희는 그만큼 건설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건설적인 데서는 윗사람 행세가 없고 영성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겸손하게 오는지 그저 좀 보라. 그러므로 아버지를 따라라. 만일 봉사에서 조금이라도 윗사람 행세가 있으면 그 봉사는 끝난다. 앗차.

Blessing: 아버지와 가까움을 경험함으로써 꿈속에서도 승리하는 대등한 동반자가 되어라. 신봉의 길에서 그들은 영적인 집회가 신과 가까이 머무는 중요한 방법임을 보여 왔다. 오직 대등한 자들만이 동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까이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생각에서 아버지와 변함없이 함께 머무는 자들은 심지어 꿈속에서도 마야가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승리한다. 끊임없이 마야의 정복자가 된다는 것은 변함없이 아버지 가까이에서 함께 머문다는 뜻이다. 너희를 아버지의 동반으로부터 떼어놓을 힘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Slogan: 장애에서 벗어나 한결같이 자유로이 머물며 남들도 역시 장애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정확한 봉사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